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콜로키움 요지

제18차 콜로키움

제목 : 하이데거와 기술의 문제

발표 : Otto Poggeler(독일 Bochum 대학)

일시 : 1991년 10월 18일(금) 오후 3시

장소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교수회의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인류는 전혀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그로 인해 현실도 새롭게 열어 밝혀지게 되었다. 철학이 앞으로도 계속 인간의 자기 성찰의 방식으로 남으려면, 철학은 자신의 상아탑의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철학은 기술에 대한 물음을 제기해야 한다. 마르틴 하이데거는 바로 이것을 시도하였다. 전쟁 발발 직전인 1937년 겨울 그는 “과학의 위협”이라는 주제의 프라이부르크의 학술 모임에서 적어도 어떻게 과학이 기술과 더불어 세계 지배를 둘러싼 투쟁의 조직 속으로 끼어들게 되었는가 하는 물음을 제기하려 했다. 하이데거의 기술에 대한 논구는 기술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하이데거는 현상학을 해석학으로 이해했다. 다시 말해 수공업자가 자신의 일에 능숙해 있는 방식은 어떤 것을 어떤 것으로 보는 이론적 통찰보다 더 근원적으로 인간의 본질에 속한다고 생각했다. 하이데거의 견해에 의하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같은 철학의 위대한 시초에 철학은 수공업적 작업의 모델에서 자신의 방향 지침을 보았다. 「존재와 시간」은 고대 그리스인들의 수공업적 작업 내지는 테크네에서부터 서양 철학이 내세우는 이론적 태

도의 우위를 해체하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기술에 대해 물음을 던진다. 인간이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스스로를 기술의 본질으로 개방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본질’ 하면 흔히 ‘무엇’이 통용된다. 기술이 무엇인가 하는 본질 존재를 묻게 될 경우, 기술은 도구로 나타날 수도 있다. 도구란 목적을 위한 수단이고, 그래서 목적을 설정하는 인간의 행위에 속하는 어떤 것이다. 하이데거 자신은 물음을 다르게 제기하고 싶어한다. 즉 기술이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자를 그 존재에로 넘겨주는가? 이제 본질은 ‘어떻게(Wie)’이며 하나의 존재함의 방식이다. ‘어떻게’는 기술의 도구적인 것 속에서 더 정확하게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하이데거는 기술에 대해 물음을 제기함으로써 우리를 하나의 길로 인도하려고 한다. 기술의 본질은 존재자가 자신의 존재에 이르는 그 방식과 인간을 만나게 되는 그 방식의 ‘어떻게’에서 경험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식의 현존함(Anwesen)은 제한되어야 한다. 모든 것이 다 그저 기술적 부품일 수만은 없는 것이다! 그러한 제한 속에서 인간은 기술과의 자유로운 관계를 획득하게 된다. 즉 인간은 동시에 순전히 기술적인 것을 넘어서게 되며, 그래서 그것의 한계를 받아들이게 된다. 인간은 기술을 선물로 파악함으로써 스스로를 기술의 본질 안으로 보내는 셈이다. 제사에 뿌리를 둔 채 남아있는 예술은 기술과는 다르게 진리와 세계의 열림이 간직하고 있는 비밀과 그 무진장함을 보여준다. 아로써 기술의 문제는 기술적 지배가 누리고 있는 무제한적인 우세에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하이데거의 생각들을 따라야 하는지가 의문이 될 수 있다. 이는 하이데거의 생각을 하이젠베르크의 생각과 비교해 볼 때 더욱 잘 드러난다. 하이데거의 80주년 생일을 축하하는 편지에서 하이젠베르크는 그들 두 사람의 단초들 사이에 해소될 수 없는 내용적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 즉 물리학도 그림 문자를 가지고 작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단지 물리학의 글자의 그림들이 예술의 그림보다 더 추상적일 람이라는 것이다. 둘의 그림 글자는 모두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소급 지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데아론을, 현실을 부적당하게 평가하거나 지배하

려는 의욕으로 무시해 버려서는 안된다.

이러한 논란은 우리로 하여금 기술과 예술을 대립시키고 있는 하이데거의 사상을 검토해 보도록 만든다. 즉 기술·과학·예술·윤리학·정치학 등이 그 상호 관계에서 새롭게 규정되어야 한다. 인간은 기술을 사용하는 데에 광적인 지배욕에 의해 세계를 장악하려고만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인간은 바로 핵 기술이나 우주 여행같은 거창한 기획들을 통해 자신의 유한성과 한계를 되새기기도 한다. 공동의 세계 문명을 위해 정당한 이해 관계들과 항의들을 그냥 무시해 버리지 않는 정치적 책임이 어떻게 구축될 수 있는지는 아직까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어떻게 우리가 기술의 문제를 해결하는가 하는 물음은 개개의 개인 모두를 위한 물음일 뿐 아니라, 또한 새로운 세계 문명의 건립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국가를 위한 물음이기도 하다.

제19차 콜로키움

제목 : Merleau-Ponty의 신체론

발표 : 김홍우 교수(서울대 정치학과)

일시 : 1991년 11월 15일(금) 오후 4시

장소 : 서울대학교 문화관 국제세미나실

메를로-퐁티(Morice Merleau-Ponty)는 1942년에 출판된 그의 초기 저작 「행동의 구조」에서 세 가지 점을 밝히고 있다. 1) 유기체는 객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더 자유롭다 ; 2) 의식은 주관주의자들의 주장보다 실제로 ‘덜’ 자유롭다 ; 3) 따라서 객관주의나 주관주의는 유기체나 의식을 설명하는 방법론으로서 적실성을 갖지 못한다. 이상과 같은 메를로-퐁티의 논의들 가운데 특히 고전적 반사 이론에 대한 비판을 통해 그가 발전시킨 유기체론에 초점을 맞추어 보자. 고전적 반사 이론에 따르면, 유기체는 하나의 정밀한 기계와 같다. 특정한 물리적-화학적 자극은 유기체의 고정된 부위에 위

치한 수용기에 전달되며, 이 수용기는 고정된 회로를 통하여 고정된 반응을 나타낸다.

메를로-퐁티는 이상과 같은 반사 이론을 위치결정론의 입장이라고 비판한다. 다시 말하면 반사 이론은 ‘기능’이 아닌 ‘위치’가 모든 반응의 형태를 결정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위치결정론에 따르면, 유기체의 각 부위에 위치한 제 수용기들은 고유한 신경 회로에 의해 특정의 운동 기관과 연결되며, 이러한 연결은 다른 기관에 의해 대체되거나, 다른 기능으로 변경될 수 없는 ‘고정 불변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반사 이론은 철저한 “폐쇄 회로의 원칙”에 입각한다. 뿐만 아니라 반사 이론은 이른바 ‘항등성 가설’을 전제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항등성 가설’이란 동일한 자극은 동일한 반응을 산출한다는 가설, 바꾸어 말하면 특정 반응은 반드시 특정 자극과 일치한다는 가설이다. 그러나 메를로-퐁티는 유기체의 실재에 비추어 이와 같은 반사 이론의 주장들은 타당성이 없다고 반박한다. 요컨대 메를로-퐁티는 개개의 점적 자극이나 자극의 위치가 반응의 형태를 결정한다고 보는 위치결정론에 반대하고 ‘형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에 의하면 “수용기들은 자극의 형태나 속성들을 기록하는 성향을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자극의 형태적 속성들은 반응의 형태를 결정하는 데에서 자극의 위치나 성질보다 더 중요하다.” 적어도 그는 자극의 형태적 속성이 자극의 요소적 속성에 비해 2차적이라거나 객관성이 약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메를로-퐁티가 고전적 반사 이론에 대해 제기한 반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동일한 자극에 대한 반응은 그 반응이 움직이려는 근육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 둘째, 동일한 자극이라도 신체의 전체적 상태에 따라 상이한 반응을 나타낸다 ; 셋째, 유기체의 반응을 결정하는 것은 자극의 ‘속성’이 아니라 자극의 ‘형태’이다 ; 넷째, 신경계의 기능은 전체적이다 ; 다섯째, 특정 자극에 반응하는 특정 수용기의 반응 구역은 해부학적으로 확정되어 있다 ; 여섯째, 하나의 유기적 조직은 여러가지 기능을 수행하며, 때로는 완전히 상반된 기능을 수행한다 ; 일곱째, 유기체는 우연성을 나타낸다. 이것은 반사에서뿐만 아니라 지각 현상에서도 나타난다.

여기서 메를로-퐁티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각각의 반사가 각각의 폐쇄 회로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신경 조직의 다양한 기능적 양식에 대응한다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각각의 신경 부위는 특정한 행동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유형 또는 특정 수준의 활동에 대응한다는 것, 이것은 마치 건강한 망막의 반부(半部)에 새로운 중심와(中心窩)가 구성되듯, 유기체의 기능은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조직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물리적 신체나 해부학적 신체 또는 생리학적 신체는 “모두가 이와 같은 기능적 신체의 추상화이거나 이것의 스냅 사진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요컨대 유기체의 행동은 유기체의 특정 부위와 관련시켜 설명될 수 없다는 것, 궁극적으로는 가장 원초적인 현상인 지각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만약 행동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 법칙을 관찰될 반응을 특정 부위의 신체 기관과 직접 연결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경계의 전체적 상태가 유기체의 보존에 필요한 적극적 개입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20차 콜로키움

제목 : 우주의 기원 : 빅뱅과 그 이후

발표 : 소광섭 교수(서울대 물리교육과)

일시 : 1991년 12월 31일(금) 오후 3시

장소 : 서울대학교 문화관 국제회의실

1. 전체의 조감(over view)

(1) 태초의 우주 상태 연구의 물리학적 의의

가. 일반상대론(중력장)

양자 중력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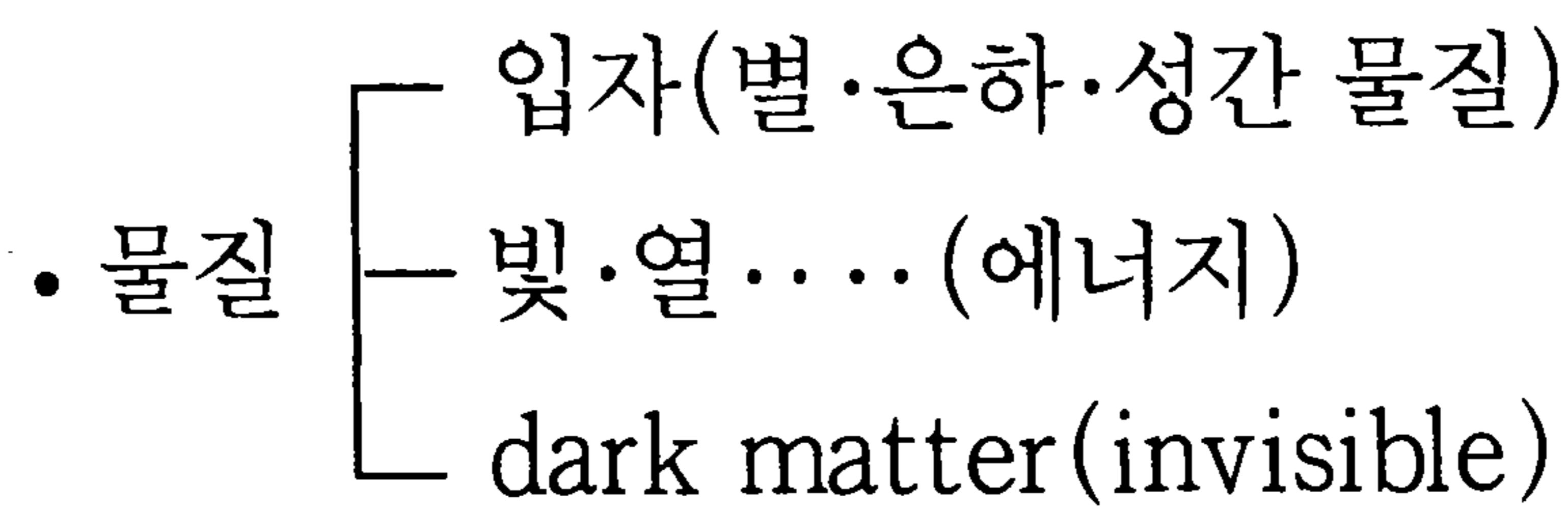
나. 양자론

통일장

다. 소립자와 상호작용

(2) 물리적 우주의 정의

$$\{\text{모든 현상}\} = \cdot \text{시간} \cdot \text{공간}$$



(3) 기본 법칙과 원리

- 가. 특수상대론 ————— 빛속도 일정의 원리
등속도 운동계의 상대성 원리
- 나. 일반상대론 ————— 운동계의 상대성
등가원리($m_I = m_A$)
- 다. 양자 이론 ————— 불확정성 원리
입자 파동 이중성
- 라. 열역학-통제 물리 ————— 열역학 제1법칙(에너지 보존)
열역학 제2법칙(엔트로피 증가)
- 마. 소립자 및 상호작용 ————— (게이지)대칭성(전하 보존 등)
(전자기, 약·강)

(4) Cosmology(물리적 우주론)의 주요 가정

- 가. \exists 4-dim. 연속체로서 시-공간의 존재
- 나. \exists matter(energy)
 - * “물질이 분포되어 있는 3차원 공간”이 시간에 따라 팽창하고 있는 모형
- 다. 균질성(homogeneity) w. r. t. 위치 ————— (large scale에서
등방성(isotropy) ————— 은하 분포)
- 라. 열평형 상태(초기)

(5) 중요한 관측 사실들

- 가. 우주 배경 복사(CMB) : 2.7°K 의 흑체 열복사 스펙트럼 등방성($8h/h$)
- 나. 적색편이(red shift) : 은하계들 모든 방향으로 달아남. 거리에

비례하는 속력(멀리 있는 것은 더 빠른 속력)

다. 태초 원소의 비(primordial elements) : H, He, Li, ...

라. 은하의 분포 $\delta\rho / \rho$

마. dark matter(광학 또는 전자기파로서 관측 안되는 물질)

2. 우주의 크기·모양·차원

(1) 크기

$$R \approx 1.3 \times 10^{10} \text{ l. y.}$$

(2) 3차원 공간

(3) 무한 \longleftrightarrow
유한 유경계
유한 무경계 \circ

(4) 우주가 유한하고 팽창하는데, 그 바깥은 무엇인가?

(5) 우주의 차원은 4차원인가?

3. Big Bang Cosmology

(1) 우주의 역사 : 약 150억년 = 1.5×10^{10} yr

(2) 팽창설의 근거 : ① 적색편이 ② 우주 배경 복사 ③ H:He:Li 존재비

(3) 태초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태초가 발생한 원인은?

태초의 물질 상태 및 물리 법칙은?

(4) 우주의 미래는?

$$\rho > \rho_c \text{ closet recollapse}$$

\leq open 영원 팽창

(5) 간략한 우주사

$$10^{-43}\text{s}$$

Plank time Quantum Gravity

양성자·중성자 등 생성

ls

$3m(10^{a9} \circ K)$	He 생성(25%)
$4 \times 10^5 \times r(4000 \circ K)$	CMWB
10^6yr	matter dominated 은하 등 생성
.	.
.	.
10^{10}yr	present
.	.
.	.
$3 \times 10^{10} \text{yr}$	recollapse?

4. 최근 연구 동향

- (1) Big Bang model의 문제점
flatness, horizon, etc.
- (2) Inflationary model
초기의 급속 팽창
- (3) Quantum Cosmology
시공 파동?
- (4) Dark Matter(invisible matter)
- (5) Homogeneity(?)
 - └ galaxy distributions($\delta\rho / \rho$) : structure
 - └ CMWB($\delta T / T$)
inconsistency

제21차 콜로키움

제목 : 영-미 사회에의 법의 역할

발표 : 안경환 교수(서울대 법학과)

일시 : 1992년 4월 3일(금) 오후 4시

장소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교수회의실

1. 영미법 체계의 의미

(1) 영국법과 미국법

(2) Common Law의 내용 개념

가. Civil Law

나. Statute

다. Equity

라. Local Law

2. 영미 Common Law 체계의 특성

(1) 배심제도

사실 문제와 법률 문제의 구분

존재 의의 : 국민의 사법 운영

(2) 역사적 계속성과 선판례 구속의 원칙

(3) 종합 법전의 부재와 경험적 사법

(4) 절차적 공정성을 중시

(5) 대립당사자주의와 변호사의 역할

3. 법원(法源)

(1) 최고 규범으로서의 헌법

가. 영국

성문헌법의 부재, 유럽 공동체의 문제

나. 미국

성문헌법과 사법 심사
법원의 역할 중시

다. 선판례

제 22차 콜로키움

제목 : 경락(經絡)에 관하여

발표 : 이혜정 교수(경희대 한의대)

일시 : 1992년 5월 22일(금) 오후 4시

장소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교수회의실

1. 경락의 개념

2. 성립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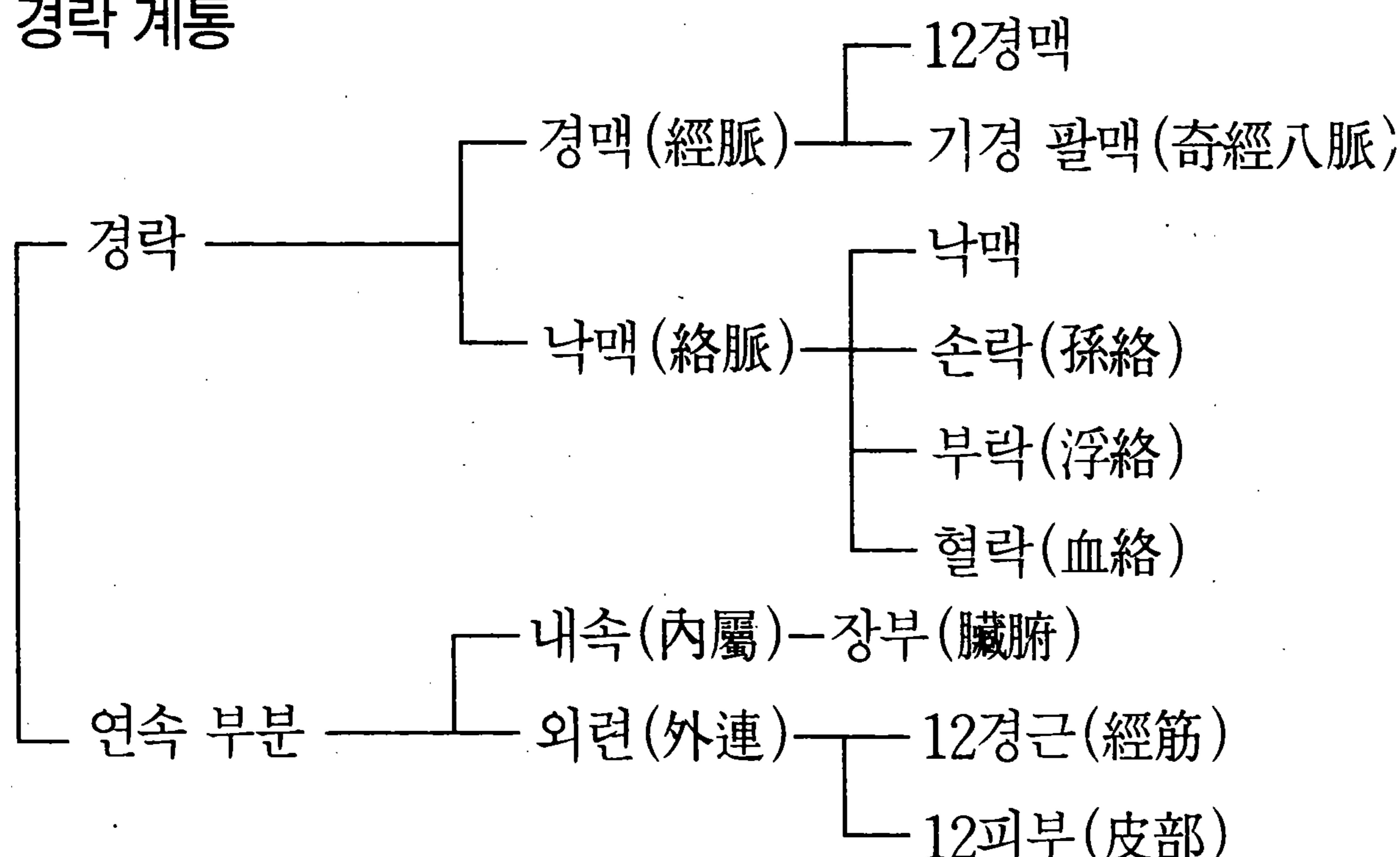
가. 점→선

나. 감응 경로

다. 해부, 생리 지식의 결합

3. 경기(經氣)의 조절

4. 경락 계통



5. 경락의 분포

〈음경(陰經) : 상행(上行)〉	〈양경(陽經) : 하행(下行)〉	
태음경 — 전면 — 양명경		
내측(內側)	궐음경 — 측면 — 소음경	외측(外側)
	소음경 — 배면 — 태양경	

6. 경락의 작용

- 가. 생리적 측면 : 운수 작용
- 나. 병리적 측면 : 반응 작용
- 다. 치료적 측면 : 전도 작용
- 라. 진단적 측면 : 순경 진단

제23차 콜로키움

제목 : 철학적 회의주의와 외부주의적 인식론

발표 : Ernst Sosa(미국 Brown 대학)

일시 : 1992년 8월 14일(금) 오후 4시

장소 : 서울대학교 문화관 국제세미나실

이 강연은 우리의 지식이 성립 가능하다고 보는 내부주의와 외부주의의 입장과 이에 대한 회의주의자의 반론을 검토한 후 회의주의자들의 전제를 받아들여야 할 합당한 근거가 없음을 보임으로써 회의주의를 반박하는 논증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회의주의자의 논증은 다음과 같다.

1. 어떠한 지식론도 내부주의적 이론이거나 외부주의적 이론이다.
2. 내부주의적 이론은 불가능하다.
3. 외부주의적 이론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식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길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회의주

의가 옳다.

강연자는 내부주의를 다음처럼 규정한다 : “내부주의는 이유나 논증의 지지를 통해서만 하나의 믿음이 지식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그리고 외부주의는 이것을 부정하는 이론으로 규정된다. 그러면 전제 1은 ‘p or not-p’의 형식의 명제이므로 참이 된다. 전제 2는 어떠한가? 내부주의적 이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식 전반을 순환 오류나 무한 퇴행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서 설명하는 길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더 이상 다른 믿음에 의한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그 믿음을 받아들임에서 그 자체로 정당화되는 믿음을 상정해야 하는데 이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제 2도 참인 명제이다. 전제 3이 참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외부주의에 속하는 세 가지 이론들 – 정합론, 기반 주의적 소여 이론, 신빙성 이론 – 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면 된다. 강연은 앞의 두 이론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신빙성 이론은 받아들일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전제 3이 참이 아님을 입증하려고 시도한다. 정합론은 믿음의 정당화를 그 믿음과 전체 믿음 집합과의 정합성에 의해서 설명하는 이론이다. 정합론이 반박되는 이유는 하나의 믿음이 지식이 되기 위한 근거로서 정합성 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전부 데카르트가 말한 악령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인식이 실재와는 전혀 다르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들은 여전히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우리의 믿음들은 지식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정합성 하나만 가지고서는 지식의 성립 근거를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정합론은 거부되어야 한다. 기반 주의적 소여 이론에 따르면, 하나의 믿음이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인식 주체의 마음에 나타나는 가장 원초적인 경험의 대상인 소여에 의해서 정당화되거나, 아니면 그것을 기반으로 한 추론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한다. 우리의 지식 체계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서 데카르트는 ‘Cogito ergo sum’을 들었다. 우리가 악령에 사로잡혀 있더라도 이 명제만은 틀릴 수 없다는 점에서 ‘나는 생각한다’라는 명제에 대한 믿음은 필연적으로 옳은 믿음이 된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믿음에서 필연적으로 옳다는 것이 그것을 믿는 믿음이 정당화된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함의하는가?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는 반례로서 ‘최대 소수는 없다’라는 명제를 생각해 보자. 이 명제는 필연적으로 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제를 믿음에서 틀릴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명제에 대한 증명을 전혀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요행수로 믿게 되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정당화될 수 없다. 만일 ‘Cogito’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이와는 다른 종류의 것이라면, 그것이 갖는 구별되는 특성이 무엇인지 를 기반주의자들은 밝혀야 한다. 이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주어지지 못할 경우 데카르트의 명제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지식의 기반이 될 자격이 없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이 명제가 왜 오류 불가능한지에 관해서는 설명했지만, 이 명제가 우리에게 의심스러울 수 없는 명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우리의 감각 경험에 주어지는 현상에 대한 믿음이 그러한 기반의 후보로서 제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에 나타난다고 해서 또는 경험에 주어진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자동적으로 정당화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믿음도 자기정당화적 믿음이라고는 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12각형과 10각형을 자주 혼동하고 분간을 못하는 사람이 벽에 걸려 있는 12각형의 물체를 보고서 운좋게 맞쳤을 경우에 그의 그러한 믿음은 지식이 될 수 없다.

이제 외부주의가 성립할 수 있는 마지막 대안으로 신빙성 이론이 남는다. 신빙성 이론은 믿음의 정당화를 믿음이 획득되는 과정의 신빙성에 의해 설명하는 이론이다. 강연자는 신빙성 이론을 옹호하는 방편으로 신빙성 이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논변을 반박하고, 이로써 위의 전제 3이 거짓임을 보여주려고 한다. 신빙성 이론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루어진다.

신빙성 이론에 따르면, 어떤 믿음이 조건 C를 만족시킬 때 바로 그 때에만 그 믿음은 지식이 된다.(여기서 조건 C는 그 믿음의 발생 과정이 신빙스러운 것으로 판정되기 위한 조건으로 생각해도 된다.) 이 언명을 T라고 한다면, 이 T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지식이 될 수 있는가? 이를 바꿔 말하자면, 신빙성 이론가들은 자신의 지식 이론이 참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T에 대한 믿음이 지식이 되는 길을 규정하는 또다른 메타 언명이 필요하다. 그것을 T'이라고 한다면, 다시금 같은 질문이 던져질 수 있다. 이에 답하기 위해서 다시 T'을 제시할 경우 또다시 같은 질문이 던져져서 무한히 퇴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곧 신빙성 이론가들이 자신의 이론에 대해서 갖는 믿음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빙성 이론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론이 된다.

이에 대해서 강연자는 T에 대한 믿음이 지식이 되는 것은 그 믿음이 T에서 언급된 조건 C를 만족하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T가 조건 C를 만족한다는 것은 어떻게 아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도 역시 “T가 조건 C를 만족한다.”라는 믿음이 C를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다. 이러한 답변은 순환에 빠지는 것이 아닐까? 여기서 강연자는 이 순환성이 악순환이 아님을 보여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믿음이 언제 정당화되는지에 관한 인식론적인 설명에 대한 믿음을 B라고 하고 그 설명이 이 B의 정당화를 설명해 주는 경우가 바로 현재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상황을 E라고 하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상황 G를 생각해 보자 : 어떤 언명 S가 있는데, 이 언명은 일반적으로 문장들이 언제 문법적 문장이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언명이고, 이 설명은 S에 대해서도 적용되어 이 언명이 왜 문법적 문장인지를 설명해 주는 경우, E나 G는 서로 유사한 상황인데 우리가 G의 순환성을 받아들이면서 E의 경우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러한 순환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느 것이 먼저인지를 따지는 것은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놓고 씨름하고 있는 것과 같은 쓸모없는 짓이 아닐까? T는 지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고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T의 설명 항을 구성하는 ‘조건 C’ 안에서 어떠한 인식적 지위(예를 들어 지식이나 정당화 등)를 가진 요소도 전혀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T는 충분히 일반적 이론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전제 3은 거짓이고, 회의주의자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없다.

제24차 콜로키움.

제목 : 윤리와 환경 : 불가피한 인간중심주의

발표 : R. T. De George(미국 Kansas 대학)

일시 : 1992년 8월 17일(월) 오후 4시

장소 : 서울대학교 문화관 국제세미나실

강물을 오염시켜 물고기를 죽이는 것이 비도덕적인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물고기의 살 권리 침해 때문인가, 아니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인가? 이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은 과학과 전통적 도덕관에 부합해야 한다.

서양의 과학적 자연관은 자연(물질) /정신, 대상으로서의 자연 /주체로서의 자아, 사실 /가치를 구별한다. 이 이분법에 따르면 자연 자체는 가치의 원천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가치는 오직 인간으로부터만 유래한다.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관한 탐구인 윤리학은 자연에 대한 과학적 탐구로부터 유래하지 않고 인간(이성·욕구·감정·의지)에 대한 탐구에서 유래한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윤리학이 과학적 자연관을 취하면서 생태학적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하는 점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나는 세 가지 주장을 옹호하고자 한다.

1. 잘못 적용된 전문 지식

환경 문제는 과학자나 기술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관련 당사자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과학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하라거나 결정하라고 말할 수 없다. 산업화와 환경 오염의 적절한 비율(적절한 공해의 수준)을 결정하는 문제는 가치에 근거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자연(동식물·산·바다)은 관련 당사자에서 제외된다.

2. 인간중심주의

인간중심주의적 윤리관만이 과학적 자연관과 양립할 수 있다. 자연은 대상이고 내재적 가치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만이 윤리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 강물을 오염시키는 행동은 물고기에 피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에게 피해주기 때문에 옳지 않다. 자연의 가치는 사람들이 자연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유래한다. 동물을 우리의 도덕 공동체에 참여시킬 것인가 여부의 결정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확장된 윤리도 역시 인간중심적 윤리이다. 윤리는 인간의 제도이기 때문이다.

3. 정합-타협을 통한 합의

문화권마다 자연관과 윤리관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범세계적 환경 문제를 실천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타협을 통한 합의만이 최선의 방안이다. 인간중심적 관점에는 이 타협을 가능케 하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가치는 인간에서 유래하므로 환경 오염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둘째, 모든 사람의 견해는 인간의 견해이다. 달팽이의 생존권을 옹호하는 사람의 견해가 존중되어야 하는 이유는 달팽이의 생존권 때문이 아니라 이들의 이익과 권리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에 기초한 합의가 가능하다. 셋째, 인간의 과학적 지식에는 한계가 있다. 한 종의 멸종이 생태계 전체에 미치게 될 영향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가급적 많은 종을 보호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타협의 과정은 각자의 관점을 정합적으로 확장하여 상충하는 관점을 가진 자의 관점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전세계적 문제에는 세계적 관점이 요구된다.

어떤 철학적 원리나 이론에 합의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으며, 인간의 공통된 관심에 비추어 볼 때 어떤 행동이 필요하고 적절한가에 관한 실천적 결정에 합의를 통해 도달하는 일이 중요하다.

제25차 콜로키움

제목 : 아리스토텔레스에서의 배움의 문제

발표 : J. D. G. Evans(영국 The Queen's Univ.)

일시 : 1992년 8월 26일(수) 오후 4시

장소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교수회의실

플라톤의 메논 80d-e에서 지적 탐구의 가능성에 관한 딜레마가 주어진다. 탐구자는 그가 탐구하는 바를 알고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알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도 탐구와 배움은 불가능하다.

메논의 난문은 인식론에 대해서 진정한 하나의 개념적 문제를 제기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후분석서」의 초반부에 나오는 이 문제에 관한 그의 논평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가 메논적 회의주의의 인식론적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가 이 문제에 대처하는 주요 전략은 가능성 지식(앎)의 개념을 통해서이다. 그가 메논의 난문을 제기하고 이것에 해결책을 내놓는 방식은 보다 최근의 철학자에서의 회의주의에 대한 검토 방식과 비교되어야 한다.(흄·비트겐슈타인·굳맨·크립키)

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적 논의들 속에 나오는 가능성 지식이라는 개념에 대한 상당히 광범위한 사용 방식을 그의 많은 작품들에서 검토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런 논의들이 보여주는 바는 메논의 난문에 관련해서 가능 지식이라는 이해 방식의 사용은 결코 요행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자세한 논의들은 우리가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회의주의적 문제들과 분명한 연관을 갖고 있다. 그러나 반(反)메논적 이론화의 가장 좋고 가장 광범위한 적용은 다음의 두 논의들에서 타당성을 얻는데, 그 두 논의들은 원래는 인식론적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이 두 논의들은 「니코마코스 윤리학」 B4의 도덕 교육에 관한 논의 그리고 「형이상학」 B1의 변증법적 방

법에 관한 논의이다.

위의 논의들의 근본적 논점은 새로운 사실들에 대한 획득 없이도 어떻게 우리가 지적 진보를 이룰 수 있는가에 관해서 이 논의들이 상세한 설명을 제공해 준다는 점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법론에서는 변증법적 경향성과 경험주의적 경향성을 화합시킬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의 형이상학에서는 실재론적 요소와 관념론적 요소를 화합시켜 줄 필요가 있다. 메논의 난문과 그 해결은 지금까지의 논쟁들에서 그래 왔던 것보다는 더 진지하게 취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26차 콜로키움

제 목 : 한국 사회의 분배 구조 시리즈 제1회(교육의 분배 구조)

발 표 : 조영달 교수(서울대 사회교육과)

논 평 : 김기석 교수(서울대 교육학과)

일 시 : 1992년 10월 9일(금) 오후 4시

장 소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교수회의실 (02-307)

한국 사회에서 직업을 획득하는 데에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 및 그 대학의 수준 등은 다른 사회에서와는 자못 다른 의미를 지닌다. 또한 이러한 대학에 진입하기 위한 고등학교에서의 학력(學力)과 대학 입학 선발시험은 그 사회적 의미에서 외국의 경우와 커다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사교육의 역할 역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크게 문제시되고 있는 과외 수업이나 학원의 번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사회에서의 교육과 소득 분배를 논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문제로 생각된다. 또한 한국 사회의 노동시장이 가지는 성격 역시 개인의 경제적 지위의 획득과 관련하여 그 나름의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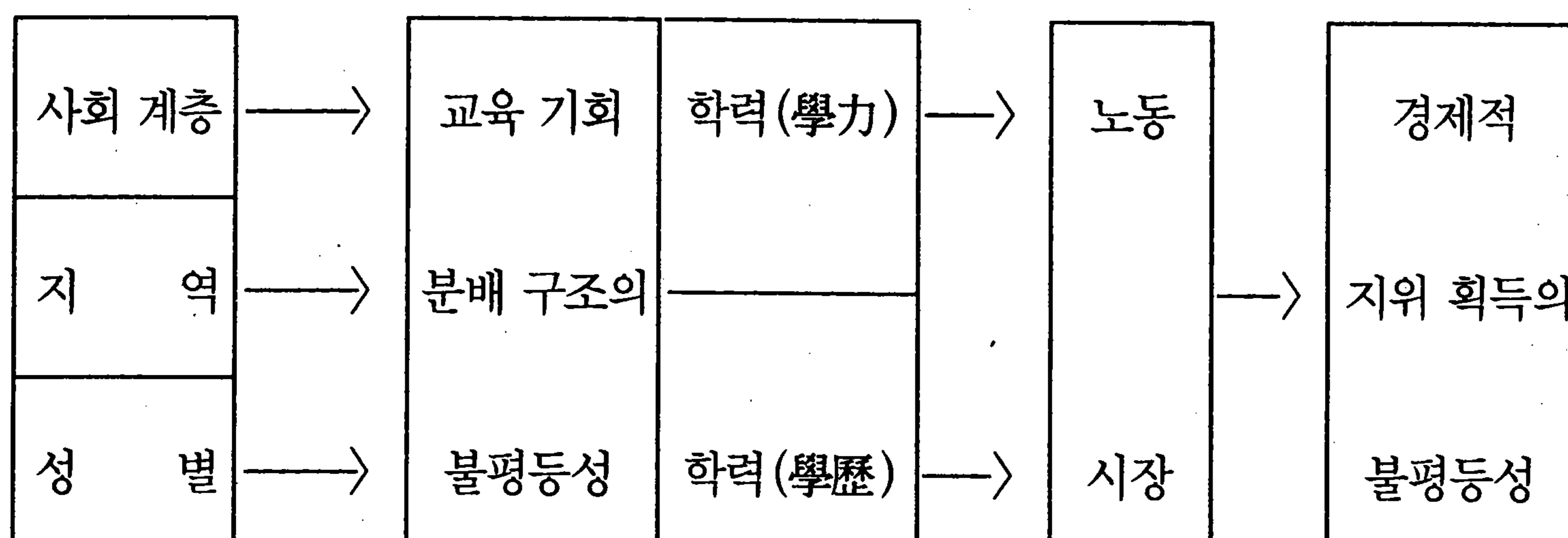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한국 사회의 교육 기회 분배 구조와 경제적 지위

획득에 관한 연구를 종합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즉 한국 사회에서 성별, 도시와 농촌을 중심으로 한 지역, 그리고 사회 계층은 교육 기회 분배 구조의 형성에 크게 작용한다. 즉 남녀의 차이에 따라, 지역에 따라, 그리고 계층에 따라 교육 기회의 분배는 불평등하게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은 학력(學歷)뿐만 아니라 학력(學力)에서도 나타난다.

서울대학교의 1992년도 신입생 현황도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남자가 전체의 79.1%이고 여자는 20.9%이다. 또한 대도시 출신이 전체 신입생의 68.5%를 차지하며, 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은 23.9%에 불과하다. 그리고 전문직과 경영직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부모를 둔 학생이 전체의 71.1%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학생 자신이 답한 자신의 가정이 처한 경제 상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자신이 속한 가정의 경제 상태를 많이 염려한 학생은 전체의 12.1%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학생들의 인적 특성에 따른 교육 기회 분배 구조의 불평등성은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지위 획득의 불평등성과도 연결된다. 즉 우리의 연구 결과들은 낮은 수준의 교육 기회의 획득이 낮은 경제적 지위로 연결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에서 논의는 간단하지 않다. 즉 노동시장의 어느 부분에 속하느냐 어떠한 산업이냐에 따라 교육 기회 분배 구조가 경제적 지위 획득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르다.

한국 사회의 교육 기회 분배와 경제적 지위 획득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즉 한국 사회에서 성별, 도시와 농촌을 중심으로 한 지역, 그리고 사회 계층은 교육 기회 분배 구조의 불평등성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경제적 지위 획득의 불평등성에도 크게 작용한다. 그러나 물론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참다운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삶에 터한” 많은 연구의 과제를 지니게 될 것이다.

제27차 콜로키움

제 목 : 등소평의 철학 사상

발 표 : 유장현 교수 (중국 연변대 철학과)

일 시 : 1992년 10월 19일(월) 오후 4시 30분

장 소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교수회의실

모택동의 철학이 정치를 중심으로 한 정치 철학이라면, 등소평의 철학은 한마디로 전략적이라 할 수 있다. 즉 그의 사상적 배경은 궁극적으로는 마르크스주의와 그것의 중국적 해석인 모택동의 노선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등소평 그 개인의 삶의 역정 속에 녹아있는 그만의 독특한 삶의 경험이 중국의 현실에 대한 철저한 자각으로 그를 내몰았으며, 그를 통해 중국 경제의 낙후한 현실과 중국 인민의 실상을 개선해야 한다는 등소평 철학의 근본 뼈대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즉 등소평에 의하면 그 이전의 중국 지도자들인 제1세대 세력들이 추구하였던 정치적 과제는 중국에서의 계급혁명 달성과 사회주의적 체계의 건설이었다. 그러나 일단 사회주의 체제가 확립된 이후 중국이 추구해야 할 목표는 그러한 사회주의 체제 자체가 지니고 있는 생산력의 향상이었다. 그러나 제1세대 지도 세력들은 이 점을 도외시하고 과도한 사상 통제 즉 문화혁명과 같은 사상 개조 작업에만 몰두하여 당면한 경제 문제의 해결을 뒤쳐지게 하였

던 것이다. 이 점이 제1세대 지도 세력들의 정책상 실수였다. 이 점을 인정하며 중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중국 경제의 근대화에서 찾자는 것이 등소평을 비롯한 제2세대 지도 세력의 공감된 지도 노선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제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등소평이 보여주는 정치 노선의 큰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집약되는데, 그 하나는 전통적으로 중국 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실사구시의 강조이고, 다른 하나는 사유에서의 변증법, 즉 사상을 행동으로 용해시켜 이론과 실천이 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실사구시를 강조하고 이론과 현실의 융합을 중시한 결과 그의 노선은 소위 흑묘백묘론에서도 보여지듯 목표와 방법을 분리하는 융통성을 지니게 되었고, 실용주의적 색채를 띠게 되었다.

그러나 등소평의 노선의 전략적 측면 아닌 궁극적 목표는 결국 전통적 마르크스 노선에 따르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이 문제의 관건은 인민의 심성이 과연 오늘날과 같은 급속한 경제 개혁 속에서도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인간상을 견지할는지 아니면 자본주의적 인간들로 변할는지 하는 조금은 다른 측면의 문제에 달려 있는 것 같다.